

남의 사랑의 숨결이 머무는
Sabah,
말레이시아
Kota Kinabalu Malaysia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가정 기도편지 Vol 8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10월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요즘 저희는 사역과 일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코타키나발루에 온 이후 가장 정신없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결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Kota Kinabalu

Malaysia

01_전교인 야유회

매년 10월, 온 교인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곡으로 갔다면, 올해는 성도님들과 함께 래프팅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한글학교 아이들까지 함께 하여 더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02_아시아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매년 10월에 열리는 아시아 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 교사 3명과 한글학교 학생 2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3박 4일간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내와 한 학생이 김구재단이 주관하는 독후감 대회에서 백범평화상을 수상하여, 시상식에도 참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해외 거주 아이들에게는 독후감 대회, 꿈 발표 대회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3_성례주일

2024년 하반기 성례식에서는 학습 1명, 세례 1명이 참여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관광지 특성상 거주하는 한인이 많지 않지만, 해마다 성례식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작년에 세례를 받은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04_한국문화의 날

코타키나발루 한국영사관이 주최하는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서, 한글학교가 한 부스를 맡아 한지 책갈피 만들기과 외국인의 한글 이름 써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이 직접 도우미로 나서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알려주고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글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05_인도네시아 발랑까라야 IGC 센터 헌당식

저희가 소속된 IGC 선교단체의 센터 헌당식이 인도네시아 발랑까라야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보르네오섬에 있지만, 코타키나발루에서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를 거쳐 발랑까라야까지 꼬박 29시간이 걸리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센터를 세우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교회가 동참해 주셨고, 인도네시아 찬양팀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06 한국방문

설 명절을 맞아, 저와 아내의 모교회인
송내사랑의교회에서 선교사 초청 집회가 열렸고,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초대받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코타키나발루 사역을 나누고, 복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만나 교제하며 큰 위로를 받았고,
무엇보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7_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1_사역에 관한 이야기

이민교회에서의 사역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입니다.
 한국에서 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표어인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를 붙들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_가정에 대한 이야기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하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이 더 쉽지만, 로컬 공립학교를 선택하면서
 많은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벽 6시 전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7시까지 등교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불평 없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주는 하린이가 참
 대견합니다.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3_재정에 관한 이야기

지난번 집 재계약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채워 주셔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는 파송교회나 후원교회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며, 그저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한국과 달리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차량 없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가정에서도 차량을 두 대씩 두고 생활할 만큼, 이동이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저희도 아이의 등·하교를 돕고, 장을 보고, 이동하려면 최소 한 대의 차가 필요하고, 심방과 사역까지 감당하려면 사실상 두 대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교회에 오래된 봉고차가 있어 사용했지만,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해 결국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로 이동하거나 성도를 심방할 때 차량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작은 차라도 하나 마련되어 사역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기도
하나

단기선교(3/22-26), 수요 신약산책(3-6월), 목장모임(3-6월), 유스코스타(3/31-4/2), 행복축제(4/27) 등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
둘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셋

언어를 잘 익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정착한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넷

교회 사역의 필요(차량, 음향장비 등)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다섯

가족 모두 강건하여 맡겨진 사역과 일상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여섯

하린이가 초등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역교회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lovekkc.com) 파송단체 IGC

재정동역 카카오뱅크 3333-04-4001931 이수민

미션펀드 <https://go.missionfund.org/kkchurch>

E-mail 이수민 jlm6987@gmail.com

이민혜 mymh4860@gmail.com

카카오톡 이수민 jl6987 / 이민혜 mymh486

